

중력을

거스르는

우아한 비상

이름
정수민



거스르는



우아한



비상

Contents

www.seoulsports.or.kr

발행일 2026년 5월 18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김성범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이준성 연세대학교 교수
편집 홍보마케팅사업단장 박용학
홍보마케팅팀 서승환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웹진 news.seoulsports.or.kr
디자인 및 제작 ㈜이팝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VIEWfinder



- 6

스포츠의 말들1
경기장, 거대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성이 꽃피는 공공재로
- 8

스포츠의 말들2
공설운동장
낡은 폐허가 아닌 '오래된 미래'를 위하여
- 12

스포츠의 말들3
경기장이 도시의 엔진이 되려면

FOREground

- 14

지금 스포츠는
즐거운 직관의 완성은 '안전'
꾸준히 증가하는 스포츠 관람 안전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16

라이벌 매치
경쟁과 공존 사이 '라이벌의 서사'
페더러와 나달
- 18

서울체육 이야기
펜스 너머의 낭만이 터지던
서울 야구의 심장 '목동야구장'

PLAYground

- 22

스포츠 현장 속으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김해의 봄이 서울의 열정으로 채워지다
- 28

스포츠가 있는 날
문턱은 없애고 활력은 채운 광화문
도심 전체가 하나의 체육관이 되다
-2026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 32

서울의 플레이어
탄성을 자아내는 우아한 비상
-강남구청 여자체조팀
- 38

스포츠 25
문턱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영등포구체육회
- 40

종목 돋보기
공중을 가르는 화려한 발차기
-서울특별시세탁타크로협회 장효정 회장



FAIRground

- 42

스포츠와 내일
바다를 거꾸로 보자
해양 오염의 원인에서
해양생태계의 파수꾼으로
- 44

SSC 챌린지
메뚜기자세 챌린지로 3초 만에 확인하는
'후면 근육' 등급 테스트!
- 46

운동장 풍경
어제보다 넓어진 보폭으로
함께 더 멀리 달리는
-번동중학교 육상부
- 52

Play 서울
두 바퀴로 누비는 자유로운 해방감
서울시 라이딩 명소 4곳
- 56

SSC 뉴스
- 62

숨은 해치를 찾아라!



서울스포츠 웹진



오디오북 듣기



경기장, 거대한 시설이 아니라 다양성이 꽃피는 공공재로

20세기의 경기장은 오직 경기만을 위해 건설되고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없는 날에는 문을 닫아 도심 공동화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경기장은 새로운 가치를 품기 시작했다.

단순히 판매 시설을 입점시켜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스포츠와 문화, 사회적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 경기장은 시민을 위한 ‘문화적 공공재’다. 그 현황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글. 정윤수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닫힌 경기장에서 열린 문화공간으로

수십 년 동안 지하철 4호선을 애용해왔다. 서울 북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살았기에 지금도 지하철하면 4호선부터 떠오른다. 역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울 정도다. 그중에서도 “아, 나의 사랑 동대문운동장역!”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누군가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줄 때 동대문운동장에서 2호선 갈아타면 된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그 역을 이용하며 야구와 축구를 보러 다녔다. 경기가 열리기 전에 평화시장 쪽 헌책방을 구경했고, 경기가 끝나면 뜨끈한 잔치국수를 먹었다. 2007년 12월 18일까지 그랬다. 그 후 기억 속의 동대문운동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들어섰다. 오해는 마시라.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회고와 낭만의 감상일 뿐이다. DDP는 그 자체로 한국 건축의 발전과 동대문 지역 상권 유지 및 디자인 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다만 어떤 상상을 해보는 것이다. 만약 DDP가 아니라, 옛 동대문운동장을 과감히 리노베이션해서 축구와 야구를 품은 공간이자 다양한 문화적 요구까지 수용하는 복합 스포츠 공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중과 주말에 경기가 펼쳐지고, 전국의 팬들이 경기 전후로 동대문 일대 상권을 방문하는 풍경,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의 공연이 이어지는 풍경을 상상해보자. 리모델링된 동대문운동장이라면 각종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먼트 메가이벤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전통 시장, 첨단 패션, 문화유산 등 동대문 일대의 다양한 문화 요인이 서울 중심가의 폭발적인 욕망을 아름답게 수용했음지도 모른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경기장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했던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경기가 없는 날 첨단 시설을 동원해 순식간에 거대한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이곳에서는 오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이미 전석 매진되어 무려 12만 명의 관객이 입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토트넘 경기장 단일 공연 사상 최고 객석 점유율이다. 이처럼 도심 경기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것은 수익과 공공성,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리노베이션을 통한 생존 전략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보자.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20세기 후반 도시 팽창 과정에서 원도심 내에 공설운동장을 빼짐없이 지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후시설이 되어 경기 외의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과거의 기준이나 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경기장에 녹아 있는 시민들의 추억과 역사를 온전히 품으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대규모 증축을 할 필요는 없다. 중소도시의 특성에 따라 1만 명 규모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나머지 부지나 시설은 낙후한 지역의 문화 인프라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주요 도시에 거대한 경기장들이 신축되었다. 전국 10개 도시 경기장 건설에 투입된 비용만 약 1조 8,100억 원에 달하며, 이후 관리 운영비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는 수지 타산을 맞췄으나, 수년째 국가대표 경기를 유치하지 못하거나 규모가 너무 커 지역 연고 구단이 전용 경기장으로 이동한 사례도 있다.

도심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외곽에 세워진 탓에 주변 상권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이제 이 공간들을 대대적으로 재생해야 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처럼 대형 할인점이나 영화관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인천문학경기장 또는 인천SSG랜더스필드 사례처럼 프로구단이 운영 및 유지 보수 권리를 양도받고 지자체와 수익을 나누는 방식 등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삶의 기억이 머무는 경기장

경기장에 단순히 예식장을 유치하는 식의 활용은 한계가 명확하다. 주말 낮 하객들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공간은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소중한 ‘장소’로 인식되기 어렵다. 우리의 상상은 훨씬 더 멀리 펼쳐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시설이나 다양한 활용도가 아니라, 경기 그 자체다. 경기장은 경기를 위해 존재한다. 선수는 최상의 조건에서 뛰어야 하고, 관중은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람해야 한다. 지역 팬들이 그들의 열망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경기 없는 날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를 위한 절대적 관건은 해당 팀이 경기장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구단이 설계 단계부터 다목적 활용 방안을 직접 기획해야 경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2028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는 돛구장과 복합 쇼핑몰, 호텔이 결합된 세계 최초의 형태로, 야구 경기를 위한 설계를 기본으로 하되 쇼핑과 공연 수요까지 창출하도록 계획되었다. 기존 경기장 역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연고 클럽 및 팬들과 소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양한 주체가 주인 의식을 갖고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경기장이 시민의 소중한 ‘공공재’라는 것은 시민들이 단순한 관중을 넘어 지역 사회의 주체로서 다양하게 참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글을 쓴 정윤수는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교수이며, 2002년 월드컵 전후로 하여 스포츠 칼럼과 축구 해설을 해왔다. 스포츠 인권 향상과 스포츠 도시 실현에 관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공설운동장 넓은 폐허가 아닌 ‘오래된 미래’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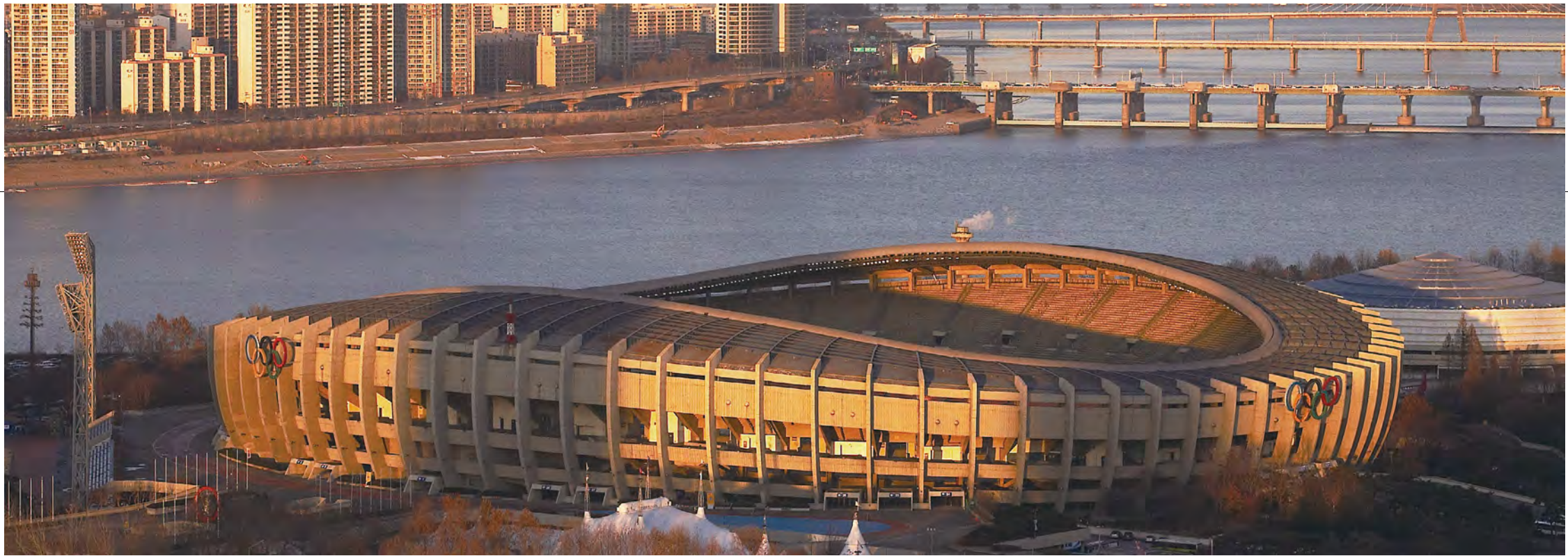
발터 벤야민은 ‘빛의 도시’ 파리에서 화려함 뒤에 반드시 쇠락이 존재한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이 진실은 한국의 도시에서도 반복되어, 과거 시민들의 의지를 상징하던 운동장들이 이제 낡고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사라짐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운동장은 급변하는 도시 속 시민들의 소중한 안식처이자,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미래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글. 박해남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글을 쓴 박해남은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한화 이글스의 팬이자 리버풀FC의 팬이다. “스포츠를 아는 지식은 사회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의 말에 감명받아 스포츠를 통해 동아시아의 도시와 사회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역사와 도시사회학을 주 전공으로 삼아 글을 읽고 쓰고 있으며, 얼마 전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이라는 책을 펴냈다.



“
푸른 잔디와 나무를 찾기 어려운
구도심에서 붉은 트랙을 갖춘 운동장은
더욱 소중하다. 운동장 옆
테니스장과 수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오래된 구도심은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다.
”

도시 발전의 상징에서 철거의 대상으로

1986년 9월 20일, 대한민국 첫 메가이벤트인 제10회 아시안게임의 막이 올랐다. 장소는 잠실 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었다. 1925년 동대문 운동장과 1960년 효창운동장을 대체하고자 1970년대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한 결과물이었다.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과 2만 명을 수용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이 거대한 경기장은, 전쟁과 가난의 고통을 딛고 아시아의 거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을 30억 아시아인들의 눈에 각인시켰다.

1932년, 발터 벤야민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파리로 향한다. 그는 그곳에서 『아케이드 프로젝트』를 집필하며, 파리가 세계의 거인으로 변모하던 시절을 탐구한다. 19세기 초 파리는 눈부시게 발전한 산업과 기술이 문화와 예술을 찬란하게 하였던 ‘빛의 도시’였다. 철골과 유리 지붕 아래 화려한 쇼윈도가 늘어선 ‘아케이드’는 그 정점이었다.

파리에 도착한 벤야민의 눈을 붙잡은 것은 아케이드의 쇠락이었다. 19세기 후반 등장한 봉마르셰, 뽀랭팡, 갤러리 라파예트 등의 백화점에 밀려 아케이드는 쇠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는 이 아케이드로부터 하나의 진실을 읽었다. 근대 도시라는 시공간을 사는 우리들의 눈앞에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지만, 화려한 것들 뒤에는 쇠락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며, 아무리 눈부시게 빛나는 것들도 쇠락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가 읽어낸 역사의 진실이었다.

이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처한 시공간에서도 목격된다. 오랜 시간 ‘서울운동장’으로 불리던 동대문의 운동장은 잠실에 위치한 새 운동장에 ‘서울’이라는 칭호를 내준 후 쇠락을 거듭했다. 이육고는 조명탑 하나만을 남긴 채 빛나는 유선형의 건물 아래로 사라졌다. 한국의 성장을 상징하던 잠실의 운동장도 쇠락을 피할 수 없었다. 오래되고 낡아 제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쇠락한 운동장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부터 재개발 계획을 구체화해 왔으며, 아시안게임 후 40년이 흐른 2026년에는 새로운 돔구장과 컨벤션 센터,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경기장만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개·폐회식을 치렀다는 상징성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방 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전, 대구, 전주, 인천, 광주, 부산 등지에 들어선 운동장들은 시민 성금이 모여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신시가지 위주로 도시가 재편되면서 구도심의 운동장들은 ‘낙후된 공간’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신축 경기장들이 들어서자 기존 운동장들은 축구 전용구장이나 야구장으로 용도가 변경되거나 리모델링의 압박을 받게 되었다.

운동장, 미래를 위한 안식처로 남아야

2000년대에 들어서며 경기장과 그 주변은 급격히 쇠락했다.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신시가지와 신도시들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녹지 공간을 통해 도시의 발전을 과시했다. 한때 번영을 구가했던 ‘구도심’은 낮은 집과 건물, 좁은 도로 가득한 회색 공간으로 여겨지며 소외되었다.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부지가 신시가지 주변으로 결정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후 쇠락한 경기장은 문제시되었고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구 시민운동장과 인천 도원경기장은 축구 전용구장이 되었고, 광주 무등경기장과 대전 공설운동장, 마산 종합운동장은 야구장으로 탈바꿈했다. 성남시는 야구단 유치를 위해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오래되고 낡았다는 말이 반드시 변화의 당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소음과 매연에 지친 이들에게 운동장은 빌딩 숲 사이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안식처다. 이웃과 만나 걷고 뛰며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푸른 잔디와 나무를 찾기 어려운 구도심에서 붉은 트랙을 갖춘 운동장은 더욱 소중하다. 운동장 옆 테니스장과 수영장 역시 마찬가지다.

오래된 구도심은 오히려 미래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다. 7,80년대 발전과 풍요를 보여주던 신도시 아파트들은 낡고 오래된 것이 되었다. 5층에서 시작된 아파트는 30층을 거쳐 50층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들도 언젠가 쇠락할 것이며, 100층, 200층으로 무한히 높아질 수도 없다. 낮고 작은 건물들이 가득한 구도심에서 삶을 영위하는 이들에게 운동장은 소통의 공간이자 안식처이고 삶을 계속할 이유를 제공한다.

발터 벤야민은 파리의 아케이드에서 산책하는 이들을 발견했다.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에는 속도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눈에는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주위를 둘러보는 이들이야말로 도시를 살아가는 인물의 전형이었다. 화려함 뒤에 쇠락이 있다는 역사의 진실이 변치 않듯,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사이에는 느리게 걷고 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공설운동장과 시민운동장들은 화려한 건축물을 위해 사라지기보다, 도시의 속도를 늦추고 시민의 삶을 보듬는 공간으로서 계속 존재해야 한다.



경기장이 도시의 엔진이 되려면

글을 쓴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는 스포츠 산업전문가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TF에 참여해 전국 스타디움·아레나 36곳을 직접 평가했다. 조선일보에 월간 칼럼 「스포츠 르네상스」를 연재하고 있으며 한국 스포츠가 성장 국가 모델에서 선도 국가 모델로 전환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도시의 엔진이 된 경기장

현대 유럽의 스포츠 경기장은 중세 도시에서 성당이나 왕궁이 수행했던 역할을 계승하고 있다. 주말 맨체스터 시민들은 대성당 대신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모여, 성가 대신 영웅 홀란드를 위한 구호를 외친다. 도시는 스포츠팀의 이름으로 기억되고, 뉴욕 여행자의 버킷리스트에는 양키스타디움과 매디슨스퀘어가든이 포함된다.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은 구단이 약 10억 파운드를 투자한 민간구장으로, 설계 단계부터 다양한 수익 모델을 기획했다. 그 결과 축구 이외에도 미식축구(NFL)·콘서트·복싱 등을 소화하며 2024/25 회계연도 상업수익만 2억 7,70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에티하드 스타디움은 동맨체스터 낙후 지역 재개

발의 중심축이 되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매디슨스퀘어가든은 NBA와 NHL 경기를 핵심 콘텐츠(Anchor)로 삼고 공연, 격투기 등을 더해 전체 매출 9억 4,000만 달러를 올린다. 런던 O2 아레나(이하 O2)는 2025년 한 해 239회 공연을 통해 290만 장의 티켓을 팔았고, 2008년 이후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이다. 제대로 기획·운영되는 경기장은 도시의 브랜드이자 정체성이며, 관광·고용·소비를 창출하는 경제 엔진이다.

한국 스포츠 인프라의 현주소

현재 국내에서도 다목적 아레나와 돐 경기장 신축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우려가 앞선다. 20년 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이용활성화 TF에 활동 당시 전국 36개 시설

정부가 K-팝 열기를 등에 업고 세계 수준의 다목적 아레나·돐 확보 의지를 천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 후보들도 앞다투어 건설 공약을 내놓는다. 관심과 의지는 반갑지만, 과거의 실수를 더 큰 명분과 예산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기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엔진’이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그 엔진을 작동시킬 올바른 순서와 원칙이다.

글.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

을 전수 조사했을 때, 많은 곳이 도시 규모와 무관한 획일적 설계로 지어져 연간 활용 일수가 손에 꼽힐 정도였다. 수백·수천억을 투입해 놓고 일 년에 손톱을 만큼만 활용되는 시설이 많았던 것이다. 대다수 시설이 국제 대회나 전국체전 유치라는 일회성 목적, 혹은 단체장의 치적을 위해 제대로 된 기획 없이 건설된 결과다.

기존 시설의 운영 구조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 FC서울의 홈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구단은 경기 당일에만 대관해서 쓰는 구조다. 경기가 없는 날에는 어느 팀 홈구장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흔적이 지워진다. 창원에서는 NC 다이노스와 창원시의 목은 갈등이 구단의 연고지 이전 검토로 번졌다.

공연 인프라로서도 부족함이 많다. 수도 서울에 1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실내 공연장은 1986년에 체조경기장으로 지어진 KSPO DOME(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이 유일하고, 이마저도 전문 공연을 위한 음향·조명·백스테이지·가변 플로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설계는 미비하다. NBA 프리시즌이나 세계적 아티스트의 월드 투어에서 서울이 배제되는 이유는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변화의 실마리는 보인다. 창동 서울아레나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대전한화생명볼파크는 공공 소유·민간 장기 운영 모델을 통해 창단 최초 홈 관중 10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절호의 기회, 하얀 코끼리를 경계하라

방향성은 분명하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필수 성공 요인을 전제로 기획된 인프라다. 첫째, 스포츠 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세계 수준의 경기 환경과 관중 경험을 갖춘 구장이 생겨야 선수가 성장하고, 팬이 모이며, 구단이 산업으로 자립할 수 있다. 둘

글로벌 복합 경기장·아레나 성공 요인 비교

구분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 (런던)	런던 O2 아레나	매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도쿄 돐
소재지	영국 런던 해링게이	영국 런던 그리니치	미국 뉴욕 맨해튼	일본 도쿄 분쿄
개장 연도	2019년	2007년 (전신: 밀레니엄 돐)	1968년 (현 건물)	1988년
규모(수용)	약 6만 3천석	약 2만석	약 2만석	약 5만 5천석
소유·운영	구단 소유 운영 (민간 자체 투자)	공공 소유 AEG 25년 민간 운영	MSG 엔터테인먼트 (민간 상장법인) 소유·운영 일체	미쓰비 부동산 산하 도쿄 돐 코퍼레이션 독립법인 운영
주요 앵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	ATP 파이널스 +대형 공연	NBA 닉스 NHL 레인저스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비앵커 콘텐츠	NFL·복싱·콘서트 F1 카팅 체험관 유럽 최장 바·버루어리	K팝 포함 연간 239회 공연·이벤트 (2025년 기준)	공연·격투기 가족쇼·잔류 이벤트	콘서트·이벤트 주변 상업·호텔· 에트랙션 생태계
핵심 성공 요인	다목적 전용 설계 (인조잔디 내장 등) 비축구 수익 다변화	전문 민간 운영 다양한 콘텐츠 믹스 2008년 이후 매년 흑자	스포츠-공연사 간 아레나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익 공유	스포츠+상업+ 에트랙션 생태계 통합 운영
연간 수익	총매출 5억 6,500만 파운드 상업 수익 2억 7,700만 파운드 한화 약 9,819억 원	총매출 1억 3,010만 파운드 세전이익 6,480만 파운드 한화 약 2,261억 원	총매출 9억 4,270만 달러 한화 약 1조 2,821억 원	총매출 약 730억 엔 한화 약 6,424억 원

※ 매출 수치는 각 구단·운영사 공개 연간 보고서 및 언론 보도 기준. 토트넘은 2024/25 회계연도, O2는 2024년, MSG는 2024/25 회계연도, 도쿄돐은 2023 회계연도 기준.



째, 도시의 복합 문화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 비경기일의 공백을 공연·이벤트·상업으로 채우는 다목적 공간으로 진화할 때, 경기장은 도시의 엔진이 된다. 셋째, 자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스폰서십·명명권·프리미엄 티켓·F&B·관광까지 수익원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으로 유지비를 메우는 구조가 반복된다. 넷째, 그 도시의 스포츠 유산을 계승해야 한다. 경기장은 콘크리트 구조

물이 아니라, 명승부와 영웅들의 기억이 쌓인 시간의 저장고다. 우리는 이 가치를 한 번 잃은 경험이 있다. 1925년 개장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스포츠 시설 동대문운동장이 헐렸을 때, 한국 스포츠는 경평 축구의 열기, 차범근의 활약, 고교 야구의 환호를 포함한 기억과 서사를 잃었다.

스포츠를 앵커로 설정하고, 목적에 맞는 설계를 처음부터 반영하며, 수익을 다변화하고, 민간 전문 운영사가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없으면 결국 막대한 유지비에도 실익은 없는 ‘하얀 코끼리(White Elephant)’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서울과 기타 지자체의 여러 스타디움·아레나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네 가지 방향성과 성공 요건을 기획·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선거철에 쏟아지는 공약 가운데 이 조건을 담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가 그 공약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경기장을 짓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선수가 한계를 향해 달리고 관중이 결과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는 그 공간에 공연·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일이다. 그 도시의 스포츠 서사가 쌓여가며, 시민 전체가 그 에너지를 공유하는 생태계를 설계하는 일이다.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진 지금이 기회다. 세계의 성공한 아레나들은 스포츠를 토대로 삼고 잘 기획된 수익 모델과 콘텐츠를 구성했다. 우선순위는 정치적 수사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순서와 원칙, 그리고 채워 나갈 내용이다.

글을 쓴 김범은 경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체육정책학회와 한국사회체육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현재 교육부 학교안전중앙공제회의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학교 체육 안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즐거운 직관의 완성은 ‘안전’

꾸준히 증가하는 스포츠 관람 안전사고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뜨겁다. 프로야구는 역대급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골프와 수영 등 생활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관람 문화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하지만 ‘스포츠 안전사고’의 통계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직관(직접 관람)’ 문화는 관람객의 실천과 시설관리자의 책임이 함께 맞물릴 때 완성된다. 진정한 스포츠 팬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장소별 안전 수칙과 대처 방안을 살펴본다.

글. 김범 경동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야구장: 150km의 흥기, ‘파울볼’을 경계하라

야구장 부상의 80% 이상은 타구 사고다. 배트에 맞고 굴절된 공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으로 날아 온다. 파울볼은 경기 흐름과 무관하게 관중석으로 날아올 수 있으며, 타구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내야석, 1루와 3루 라인, 파울 풀 주변 좌석에서는 그라운드 상황을 의식해야 한다.

주시의 의무 경기 중에는 전광판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공수 교대 시나 이벤트 타임에도 연습 투구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어 자세 호루라기 소리나 안내 멘트가 들리면 공을 찾으려 고개를 들기보다, 즉시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의자 아래로 몸을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계단 사고 예방 맥주나 음식물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파른 계단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난간을 잡아야 한다. 어린이가 난간에 기대거나 통로에서 뛰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프장: “볼(Fore)!” 소리는 생존의 신호다

골프장은 넓은 개방감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관람객인 갤러리에게는 타구 사고와 카트 사고라는 고유 위험이 존재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비자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정확한 위치 신고

구조물 붕괴, 감전 등 주변 위험을 먼저 살핀 뒤 119나 안전요원에게 알린다. 이때 구역·좌석·출입구 번호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대형 경기장에서는 “관람석 쪽”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구조 인력이 신속히 도착하기 어렵다.



임의 조치 금지

환자가 머리, 목, 척추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함부로 일으키거나 옮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화재, 추가 낙하, 압사 위험 등 2차 사고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동해야 한다.



비상구 분산 대피

대피 시 들어왔던 입구로만 물리는 군중 심리를 주의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찾아 분산 이동하며, 계단이나 좁은 통로에서는 절대 밀지 않아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위해 사례 87건 중 골프카트 관련 사례는 44건으로 50.6%를 차지했다. 또한 일부 카트 도로에서는 급경사 구간, 미끄럼 방지 포장 미흡, 주의 및 경고 표지 부족, 노면의 패임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다.

위험 신호 대처 “볼! 혹은” “포!”라는 외침은 주변에 공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긴급 신호다. 이때는 공의 방향을 찾으려 하기보다 즉시 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낮추어 나무나 카트 등 장애물 뒤로 숨거나,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지면에 엎드려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사진 촬영이나 가까운 관람을 위해 선수의 스윙 반경뿐 아니라 공의 비거리 내에 있는 갤러리 통제선을 절대 이탈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갤러리는 카트 도로를 보행로처럼 이용하지 말고, 경사로와 곡선 구간에서는 카트가 완전히 정지한 뒤 이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골프장 안전은 선수의 경기 에티켓만이 아니라 관람객의 위치 선정, 이동 질서, 위험 신호에 대한 즉각적 반응에 달려 있다.

수영장: 시설관리 사각지대, 젖은 바닥과 좁은 대피로

수영장은 직접 물에 들어가는 이용자 안전이 주로 강조되어 왔지만, 대회나 행사가 열릴 경우 관람객 안전 역시 매우 중요

하다. 실내 수영장은 바닥에 물기가 많고 습도가 높아 계단, 통로, 관람석 주변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일부 노

후 수영장의 경우 관람석 난간, 천장 구조물, 조명, 환기시설, 비상구, 대피로 관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관람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밀집 지역 관리 수영대회가 열리는 날에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람객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출입구와 통로가 쉽게 혼잡해진다. 통로에 가방이나 응원 도구를 놓아두는 행동은 평상시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화재·정전·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대피를 방해하는 위험 요인이 된다. 관람객은 젖은 바닥에서 뛰지 않고, 어린이가 난간이나 수조 주변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살피며, 비상구와 대피 동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운영적 측면 운영자는 관람석 수용인원, 대피로 폭, 비상구 개방 여부, 미끄럼 방지 상태, 노후 구조물의 고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임시 좌석이나 물품 적치로 대피 동선이 좁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수영장은 물, 전기, 습기, 인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작은 시설 결함도 큰 사고로 확대될 수 있다.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관망에서 실천으로

과거의 스포츠 안전이 단순히 진행 요원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관망’이었다면, 현대의 안전관리는 관람객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능동적 실천’을 포함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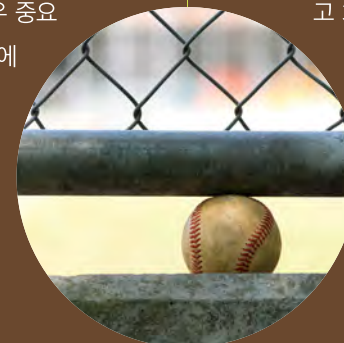
첫째, 시설 결함과 인적 부주의의 복합화다. 2025년

3월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외벽 구조물(알루미늄 루버) 추락 사고는 경기장 안전이 단순한 관람 에티켓의 문제를 넘어, 구조물 유지관리와 정기 점검을 포함하는 ‘종합 안전관리’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시설물 관리 미흡이라는 하드웨어적 결함은 언제나 관람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심리적 패닉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다. 수만 명이 운집하는 경기장에서 돌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리적 충격보다 무서운 것은 군중의 패닉이다.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2차 압사 사고 등은 더

큰 피해를 낳는다. 따라서 관람객은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를 짧게나마 그려보는 ‘위험 인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진정한 안전은 경기장 운영 주체의 철저한 비상 대피 체계(EAP) 구축과 관람객의 성숙한 질서 의식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완성된다. 경기장의 안전요원과 시스템을 신뢰하되, 내 안전은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스포츠 현장은 비로소 진정한 감동의 장이 될 것이다. 승패를 가르는 득점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전이다. 좋은 관람객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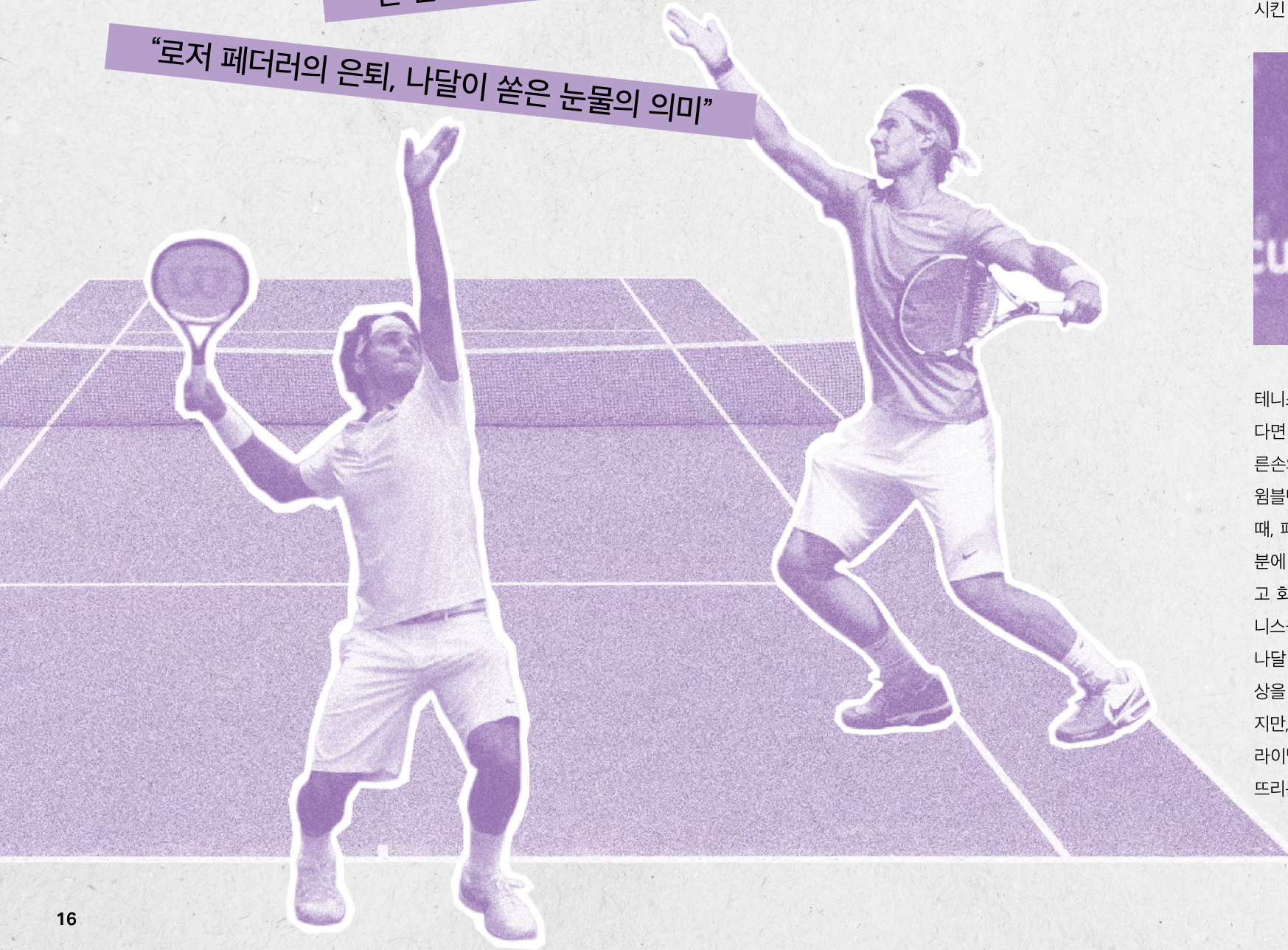
경쟁과 공존 사이 ‘라이벌의 서사’ 페더러와 나달

“황제의 독주를 막아선 야성 ... 페더러의 ‘우아함’ vs 나달의 ‘강철 왼손’”

“2008년 Wimbleton 레전드 경기,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4시간 48분”

“단 한 포인트를 위하여 ... 페더러와 나달의 끝없는 랠리”

“로저 페더러의 은퇴, 나달이 쏟은 눈물의 의미”



여기 코트 위에서 불멸의 신화를 써 내려간 두 명의 전설이 있다. ‘테니스 황제’로 불리며 교본과도 같은 우아한 플레이를 펼치는 로저 페더러, 그리고 ‘클레이코트의 신’이라 불리며 불굴의 투지와 강력한 왼손 스트로크를 구사하는 라파엘 나달이다.

테니스 역사의 정점을 완성한 숙명의 라이벌, 그들의 찬란했던 황금기를 들여다본다.

정리. 편집실

고통스러운 패배가 빚어낸 황금기 서로의 한계를 재정의하다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기’를 만들어낸 두 선수,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 이들의 서막은 2004년 마이애미 오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완성형 선수’ 페더러 앞에 나타난 17세 소년 나달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승을 거두며 전설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2008년 Wimbleton 결승에서 다시 맞붙은 두 사람의 혈투는 테니스 역사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빗줄기와 어둠 속에서 4시간 48분간 펼쳐진 이 경기는 ‘잔디의 황제’ 페더러를 무너뜨린 나달의 승리로 끝났고, 외신은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었다고 흥분했다. 이 대결은 두 사람의 경쟁이 곧 현대 테니스의 황금기임을 전 세계에 각인 시킨 결정적 장면이었다.



테니스 역사에서 로저 페더러와 라파엘 나달의 관계는 ‘서로가 없었다면 도달할 수 없었을 성취’로 요약된다. 초기 테니스계를 평정한 ‘오른손의 황제’ 페더러에게 나달의 등장은 거대한 균열이었다. 2008년 Wimbleton 결승에서 자신의 안방과 같던 잔디 코트를 나달에게 내주었을 때, 페더러는 라커룸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훗날 그는 “나달 덕분에 라켓 헤드 크기를 바꾸면서까지 더 나은 선수가 되려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나달의 지독한 톱스핀과 수비력이 페더러의 우아한 테니스를 기술적으로 재창조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셈이다.

나달 역시 마찬가지다. 페더러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며 끝없는 부상을 이겨내야 했던 그는 “로저가 없는 시대였다면 더 많이 우승했겠지만,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테니스를 구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라이벌의 존재를 ‘축복’이라 정의했다. 이들에게 라이벌은 나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이었다.

코트 너머의 유산 경쟁을 넘어선 이들의 깊은 애우

치열했던 경쟁의 끝에는 시기나 질투 대신 깊은 존경과 연대가 남았다. 2022년 런던 레이버 컵에서 열린 페더러의 은퇴식은 그 정점이었다. 평생의 적수였던 나달은 페더러의 마지막 복식 파트너로 나섰고, 경기가 끝난 뒤 두 거장이 벤치에 앉아 손을 맞잡고 오열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다. 나달은 “로저가 은퇴할 때 내 삶의 중요한 일부도 함께 떠나는 것 같았다”며 동료 이상의 유대감을 드러냈다. ‘완벽한 3인자’에서 시작해 결국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GOAT(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른 조코비치 또한 은퇴식 현장에서 수건을 가져다주며 그의 마지막을 예우했다.

2026년 현재, 이들의 라이벌리는 코트 밖에서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나달과 페더러는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라이벌의 미학’을 선보이는 한편, 주니어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승부를 가르던 손으로 이제는 서로의 어깨를 감싼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서로를 담금질해 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적표로만 요약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이면에 승패보다 깊은 ‘성장’과 ‘연대’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픈 패배를 안겨준 상대가 인생에서 가장 나를 잘 이해하는 동반자가 된 이들의 서사는, 갈등과 경쟁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 진정한 라이벌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묵직한 해답을 제시한다.



스타일 비교로 본 ‘페달(페더러+나달)’

로저 페더러 (Roger Federer)	VS	라파엘 나달 (Rafael Nadal)
스위스	국적	스페인
테니스의 황제	별명	클레이(코트)의 신
클래식하고 우아한 원핸드 백핸드	타법	강력한 회전의 원손 헤비 톱스핀
공격적인 서브 앤 발리와 빠른 타이밍의 샷	경기운영	끈질긴 수비력과 강력한 반격
잔디 (Wimbleton 최다 우승 중 하나)	선호코트	클레이 (프랑스 오픈 압도적 최다 우승)
냉정함을 유지하는 포커페이스와 평정심	특징	매 포인트가 마지막인 듯 불태우는 강인한 투지
잔디 및 하드 코트	강점	클레이 코트에 압도적 우세



펜스 너머의 낭만이 터지던 서울 야구의 심장 ‘목동야구장’

체육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커지면서
선수들에게도 관람객에게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의 체육시설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목동야구장은 시설 면에서 최고의 구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기술로도 완성할 수 없는 역사와 낭만을 간직한 곳이다.
1989년 이후 서울 서부 야구의 중심이 되어준 목동야구장의 궤적을 짚어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공



탁 트인 풍광이 돋보이는 목동야구장의 야간 전경 (2014)

야구 본연의 즐거움을 지닌 구장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서 목동야구장은 단순한 경기장 이상의 상징성을 지닌다. 현재는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인 목동야구장은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생동감과 목동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살아 숨쉬는 '도심 속 야구장'이었다.

목동야구장은 다른 대형 구장들과 달리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웠다. 특히 좁은 파울존은 팬들이 경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요소였다. 물론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상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의 구장 설계 또한 홈 플레이트에서 외야를 바라볼 때 북북동향을 향하는 배치였다. 외야수들은 플라이볼을 처리할 때 다소 애를 먹었지만, 덕분에 관중들은 해를 등지고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 당시의 한국 야구장 중에서는 보기 드문 목동만의 특징으로 꼽혔다. 특히 목동야구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외야석 없는 탁 트인 풍광'이다. 외야석 대신 설치된 그물망과 그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전경은 목동야구장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낮은 펜스 덕분에 역동적인 홈런 타구가 시원하게 뻗어 나가는 모습은 팬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이처럼 목동야구장은 화려한 최첨단 시설보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이 중심이 되어 팬과 선수 간의 심리적 거리감

을 좁혀준 소중한 공간이었다. 뜨거웠던 포스트시즌의 함성과 가을 바람의 서늘함이 공존하던 그 시절 목동의 풍경은, 여전히 많은 야구팬의 가슴속에 가장 낭만적이었던 시절로 남아 있다.

히어로즈와 함께한 성장과 열정의 시간

2008년 현대 유니콘스의 해체 이후 창단한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가 목동에 등지를 틀며 프로야구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됐다. 당시 목동은 프로 경기를 치르기엔 다소 열악한 환경이었다. 외야석이 없어 전광판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훤히 보였고, 경기 중 터지는 홈런공은 인근 주민의 차량을 위협하기 일쑤였다. 밤마다 터지는 응원 소리에 소음 민원이 빗발쳤지만, 역설적으로 그 소동 속에서 목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피어났다.

괴상한 춤을 추며 관중을 홀리던 마스코트 '턱돌이'와 인근 마트에서 공수한 음료를 즐기던 외야 펜스 뒷길은 목동의 상징이 되었다. 강정호, 박병호, 서건창 선수가 이곳에서 장의 홈런을 쏘아 올릴 때면, 팬들은 이제 시작된 새 구단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2015년 10월 14일, 넥센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은 목동야구장의 마지막 프로야구 경기가 되었다. 팬들은 8년 간의 회로 애락이 담긴 구장을 떠나며 눈시울을 붉혔다. "좁고 불편했지만, 선수들의 숨소리가 가장 가깝게 들리던 곳"이라며 아쉬움도 토로했다.



주요 고교야구 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동야구장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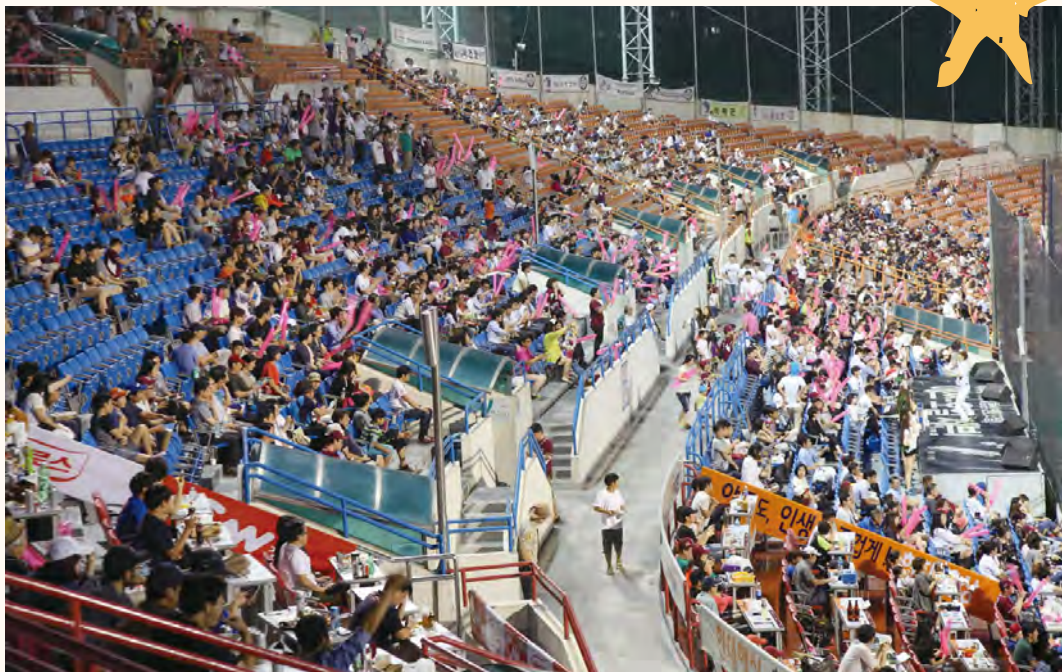
최신식 고척돔으로의 이전이 기쁘면서도, 특유의 노천 분위기와 낭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교차했던 것이다. 마지막 경기 후 당시 넥센 히어로즈 염경엽 감독은 “목동은 히어로즈가 성장한 고향 같은 곳”이라며 구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동대문의 정신을 계승한 ‘미래 스타들의 관문’

2016년 프로야구팀이 떠난 뒤 목동야구장은 한국 야구의 고향이었던 동대문운동장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2008년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며 청룡기, 황금사자기, 대통령기, 봉황대기 등 유서 깊은 고교 야구 대회들이 대거 목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때 동대문운동장 철거 당시 떼어온 플라스틱 좌석을 그대로 옮겨와 설치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앉으면 동대문의 향기가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곧 사라진 동대문의 역사를 잇는다는 상징성을 가져온 일이기도 했다. 실제로 이 대회들이 목동에 뿌리를 내리면서 목동야구장은 명실상부한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가 되었다. 지금은 메이저리그를 호령하는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휘문고 시절 타격감을 조율했고, 강백호(KT 위즈)가 서울고 유니폼을 입고 투타 겸업의 괴물 같은 실력을 뽐냈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전국 주말리그의 성적표를 쥐고 상경한 고교생들에게 목동의 마운드는 오르고 싶은 꿈의 무대다.

현재도 목동의 여름은 뜨겁다. 피약별 아래서 자녀의 이름을 목놓아 부르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기도, 패배 후 더그아웃(Dugout) 뒤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는 소년들의 눈물이 서려있다. 최신식 돔 구장이 줄 수 없는 흙먼지 냄새 가득한 ‘야구의 원형’이 목동야구장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목동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수많은 야구인의 땀방울이 스며든
기록관이자 박물관이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팬들이 넥센 히어로즈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 (2014)

서울 야구의 자부심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목동야구장이 서울 야구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단지 대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에 야구가 상륙한 이래, 동대문운동장으로 대표되던 ‘서울 야구의 정통성’을 고스란히 이식받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서울에서 야구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잠실이나 고척이 아닌 목동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목동은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수많은 야구인의 땀방울이 스며든 기록관이자 박물관이다.

오늘날의 목동은 과거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 시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낸다. 2016년 고척 스카이드를 개장 이후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전환되며 황금사자기, 청룡기 등 유서 깊은 고교야구 대회의 메인 스테이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인조잔디 교체와 전광판 개선 등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거쳤으며, 과거 소음 문제의 상징이었던 앰프 응원 대신 포수 미트에 꽂히는 공 소리가 구장을 채울 정도의 고요함이 자리 잡았다. ‘도서관 야구장’이란 별명이 이곳의 또 다른 정체성이 된 것이다. 과거에는 프로야구의 한 시대를 오늘에는 고교 야구 경기와 훈련을 책임지며 한국 야구 저변을 지탱하고 있는 공간. 목동야구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야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기억하고 이어주며 제 의미와 역할을 꾸준히 찾아가고 있다.



Q 80주년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로, 2026년 80회를 맞아 목동과 신월에서 개막한다. 고교 최고 투수 및 타자들의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 4대 메이저 대회로는 황금사자기, 청룡기, 대통령배, 봉황대기가 있다. 5월 황금사자기를 시작으로 여름 청룡기, 대통령배, 가을 봉황대기가 서울권 야구장(목동/신월)에서 열리며, 이들 대회 우승은 고교야구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영화 ‘슈퍼스타 감사옹’ 촬영지로 활용된 목동야구장 (출처: 네이버 영화 스틸컷)



제80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대회 기간	2026년 5월 2일(토) ~ 5월 16일(토)
대회 장소	서울 목동야구장, 신월야구공원 야구장
티켓 예매	현장 판매 및 온라인 예매
가격	성인: 10,000원 청소년: 4,000원
중계 안내	8강전부터 SPOTV 및 SPOTV NOW 생중계



추억의 목동야구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목동야구장에서의 마지막 경기

출처: 유튜브채널
〈키움 히어로즈〉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김해의 봄이

서울의 열정으로 채워지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활력이고,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지난 4월, 경상남도의 푸른 대지 위에서 펼쳐진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기록과 순위보다 더 값진 '함께 달리는 즐거움'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서울을 대표해 나선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섞인 설렘과 정직한 땀방울이 교차했습니다. 승부를 향한 치열함 끝에 찾아온 동료와의 포옹, 그리고 관중석의 환호가 어우러진 그 찬란했던 봄날의 공기. 충분히 뜨거웠던 서울특별시 선수단의 빛나는 순간들입니다.

글. 서승환 사진. 김수한



상대 팀의 블로킹을 피해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참가자



사진출처: 연합뉴스

줄넘기 대회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단체 줄넘기 경기에서 환상의 팀워크를 선보이고 있다.



#절벽블로킹 #하나된팀워크



철인3종 경기에 출전한 참가자가 수영을 마치고 사이클로 전환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한계에 도전하는철인 #폭발적인스피드



철인3종 경기에 출전한 참가자들이
사이클을 타고 질주하고 있다.



철인3종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생활체육인들이 시상대 위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철인3종 경기에 출전한 참가자가
급수 지점에서 물을 건네받으며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파크골프 참가자가 정교한 샷을 준비하고 있다.



#도심속갯샷 #신중한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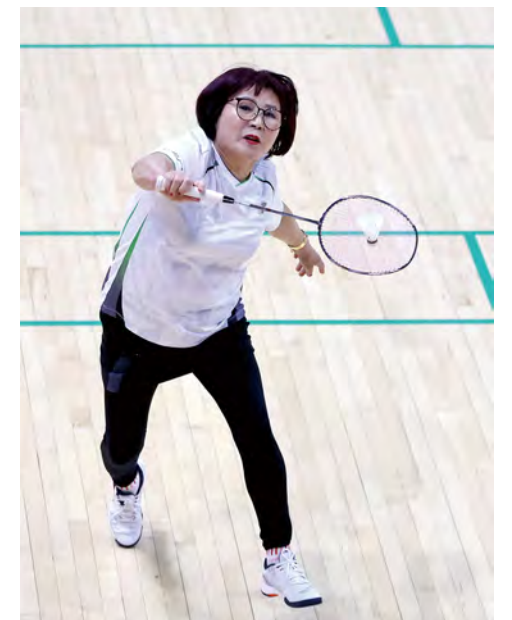
녹색 필드 위에서 한 참가자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퍼팅 라인을 살피고 있다.



철인3종 경기를 마친 참가자가 결승선을 통과하며 환희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다.



#환상의복식호흡 #강력한스매싱



날아오는 셔틀콕을 향해 두 참가자가 수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턱은 없애고
활력은 채운 광화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2026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이 지난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세종문화회관 내 마루형 공간인 '오픈스테이지'를 활용해 도심 속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체육 강습을 무료로 제공하며, 일상과 예술 그리고 스포츠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새로운 여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글. 심정윤 사진. 서울특별시체육회

도심 전체가

하나의 체육관이 되다

2026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이용 운영 현황

주요 운영 종목

댄스스포츠, 케이팝(K-POP) 댄스,
에어로빅힙합, 요가, 필라테스

운영 기간

2026년 3월 ~ 12월 (상반기·여름특강·하반기 구분 운영)

참여 인원

수업 1회당 25명 이내 (취약계층 5명 우선 배정 포함)

이용 문의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 홈페이지



광화문 광장의 설렘, 사전 홍보 행사로 문을 열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지난 3월 8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사전 홍보 행사가 펼쳐졌다. ‘보고,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힙합 등 전문 지도자들의 역동적인 시범 공연이 이어지며 지나가던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현장 접수를 통해 진행된 ‘원데이클래스’는 회당 100명 내외의 시민들이 참여해 광화문의 아침을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 채웠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점심 산책을 나온 직장인까지, 탁 트인 광장에서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경험은 ‘열린 스포츠 축제’라는 사업의 취지를 몸소 체험하기에 충분했다.

세종문화회관에 위치한 오픈스테이지는 이제 시민들의 열기로 가득한 도심 속 체육관으로 변모한다. 대형 스크린과 전면 거울,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이곳에서 시민들은 전문 지도자의 세심한 지도 아래 체계적인 운동을 경험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오전, 점심, 오후 시간대로 촘촘하게 구성되었다. 특히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된 12시 점심 시간대와 퇴근 후 저녁 시간대는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열린 스포츠, 세심한 운영 돋보여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은 운영의 의미를 살려 정보 소외 계층을 향한 문턱도 낮췄다. 매 수업마다 취약계층 시민 5명을 우선 배정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향후 ‘시범 클래스 데이’를 통해 발레 등 선호 종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또한 철저하다. 주최자 배상책임보험 가입뿐 아니라 현장마다 구급함을 비치하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도자들 역시 소화기 사용법 및 재난 상황 대처 방안 등 안전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세종문화회관의 예술적 감성과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만나 탄생한 스포츠 in 아트스테이션. 숨 가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나만의 리듬을 찾고 싶은 서울 시민이라면, 지금 바로 세종문화회관 아카데미 홈페이지의 문을 두드려보자.

탄성을 자아내는 우아한 비상 강 남 구 청 여 자 체 조 팀



고요한 체조관 안, 정적을 깨는 것은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매트 위를 박차는 힘찬 도약 소리뿐이다. 찰나의 연기를 선보이기 위해, 강남구청 여자체조팀 선수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중력을 거스르는 사투를 벌인다. 2003년 창단 이래 대한민국 여자 기계체조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은 이윤철 감독의 지도 아래 오늘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글. 심정윤 사진. 박성수 영상. 이덕재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의
뜨거운 훈련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사진 왼쪽부터 이윤철 감독, 이수민, 정충민, 구보인, 김서현 선수



처럼 오갈 때마다 훈련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손끝의 미세한 감각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정교함, 그리고 거침없이 몸을 날려 공중 회전 후 다시 바를 낚아채는 과감함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0cm 남짓한 폭의 평균대 위에서 잭 동작과 솔 서클, 옆공중 동작을 물 흐르듯 이어가는 이수민 선수의 모습은 보는 이의 숨을 멈추게 했다. 찰나의 순간에 펼쳐지는 우아한 비상 이면에는 평균대 위에서 중심을 잃고 수없이 낙하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완벽한 체조 연기는 수만 번의 시련을 딛고 중력을 거스르며 완성한 연습의 결실이다. 이윤철 감독은 선수들의 발끝 하나, 손가락 끝의 각도 하나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도를 이어갔다. “서울의 15개 단체팀 중에서도 유일하게 20년 이상 장수하는 팀입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낸 그는 “명문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
단 한 번의 완벽한 체조 연기는
수만 번의 시련을 딛고 중력을 거스르며
완성한 연습의 결실이다.
”



찰나의 비상을 위한 수만 번의 추락

기계체조는 기구를 사용하여 신체의 힘, 유연성, 민첩성, 균형감을 바탕으로 고난도의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단순히 근력을 뽑내는 것을 넘어, 신체의 통제력을 극대화하여 공중 회전, 도약, 정지 동작 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자 기계체조는 도마, 이단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의 네 종목으로 구성되며, 각 종목은 근력, 유연성, 예술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특히 기계체조는 선수 개개인이 특정 기구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종목을 소화해야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네 종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개인 종합 순위를 매기는데, 이때 기술의 난도(D점수)와 동작의 정확성(E점수)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현재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은 정충민, 이수민, 김서현, 구보인 등 4명의 정예 선수로 구성돼 있다. 매일 오전 9시, 서울체육고등학교의 체조관은 이러한 한계에 도전하는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의 열기로 가득 찬다. 0.1점 차이로 순위가 갈리는 예민한 종목 특성상 연습장에는 실전과 다름없는 긴장감이 감돈다. 이들은 주 6일, 오전과 오후로 이어지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실전과 다름없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 훈련의 시작을 알리는 마루운동 매트 위, 몸풀기를 하는 선수들의 립 점프와 교차점프가 반복된다. 구보인 선수는 공중 두 바퀴를 시원하게 돌며 폭발적인 탄력을 선보이고, 이단평행봉 아래서 탄마가루를 손에 바르는 김서현 선수의 눈빛에는 매서운 집중력이 서려 있다. 높이가 다른 상단 바(Bar)와 하단 바를 번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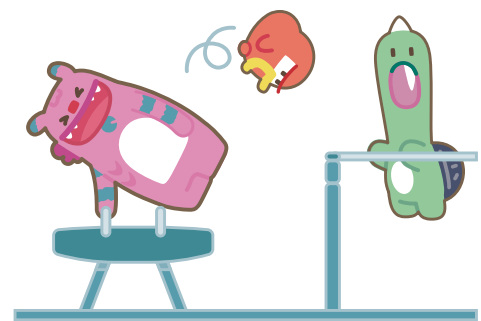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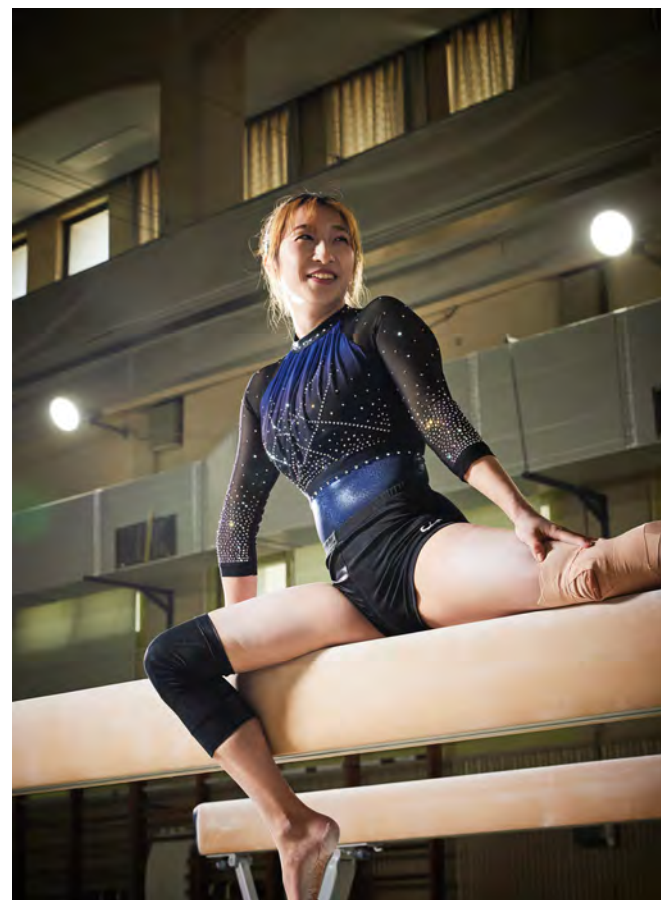


팀과 함께 도약하는 힘

팀의 맏언니이자 주장인 정충민 선수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권유로 체조를 시작했다. “메달을 가장 많이 딴 도마가 제일 자신 있지만, 평균대는 여전히 무서워요”라고 웃어 보인 그는 실전 훈련 중에도 동료들의 자세를 꼼꼼히 체크한다. ‘다리를 봉 쪽으로 차야 몸을 안아서 돌릴 수 있다’며, 다리가 뒤로 빠지면 봉이랑 떨어진다고 설명하면서도 눈은 동료 선수의 동작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허리에 힘줘! 발, 어깨 더 세워!” 멀리서도 찌렁찌렁하게 들리는 그의 코칭은 팀의 기량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시너지가 되고 있다.

친언니를 따라 체조를 시작한 이수민 선수는 남들이 따라 하기 힘든 동작을 완벽히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체조의 매력으로 꼽았다.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돌아온 그는 “평균대는 무릎과 발끝이 잘 퍼지는 제 장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며, 부상 없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다음 대회에서는 팀원들과 함께 단체전 순위권에 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수들은 반복되는 착지 충격과 잦은 통증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마루운동 구역에서는 우아한 동작과 강력한 공중 회전이 실 새 없이 교차했다. 매트 위로 발이 닿는 순간의 둔탁한 파열음은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김서현 선수는 연습 중에도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대회 전에는 색소폰 소리가 들리는 음악을 들어요. 집중력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져 ‘오늘은 실수하지 않겠다’ 싶어요”라며 자신만의 몰입 비결을 밝혔다. 추천 곡을 알려 주는 선수의 허벅지와 무릎은 테이핑으로 가득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머물렀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비상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의 저력은 최근 기록이 증명한다. 지난해 제80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단체종합 3위를 차지하며 탄탄한 팀워크를 과시했다. 특히 김서현 선수는 도마와 마루운동에서 각각 2위에 입상하며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에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김서현 선수는 2025년 7월 독일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 출전하며 세계 무대에서도 위상을 높였다.

이윤철 감독은 현재 4명뿐인 선수들이 각자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에 집중하며 선수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 “체조는 체중 조절과 혹독한 훈련을 견뎌야 하는 인내의 종목이라 선수들이 안쓰러울 때도 많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참 대견하다”며 “다가올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매번 마주하는 부상에 대한 두려움과 시린 통증 앞에서도 선수들은 결코 멈춰 서지 않는다. 두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쌓아 올린 이들의 빛나는 매일이 머지않아 찬란한 ‘금빛 비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뛰어오르는 강남구청 여자체조팀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문턱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영등포구체육회

안양천 건강체조교실부터 어르신들의 활력이 되는 게이트볼 리그까지,
영등포구체육회의 손길은 구민 생활 곳곳에 닿아 있다. 구민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등포구체육회는 오늘도 '건강한 영등포'라는 목표를 향해 힘차게 걷는 중이다.

글. 심정윤 사진. 황지현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등포구체육회

영등포구체육회는 '구민 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35개 종목 단체와 약 2만 5천 명의 동호인이 활동 중인 영등포구체육회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제약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매진해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체육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2년 사이 신길동, 대림동, 당산동 등을 중심으로 수영장을 포함한 5~6개의 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며 인프라 지도를 넓혔다.

재정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또한 영등

포구체육회만의 강점이다.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전환된 이후 오성식 회장은 직접 발로 뛰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정 기부금 사업을 유치해냈다. 더 나아가 성애병원, 신세계 서울병원 등 지역 내 주요 의료기관과 업무 협력(MOU)을 체결하여,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건강 관리가 필요한 동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더불어 생활체육 분야에서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높이고자 엘리트 체육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배드민턴 종목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이

동수 선수 등 국가대표 출신을 초빙해 동호인들에게 직접 레슨을 제공하고 시범 경기를 선보이며 체육을 하나의 '축제'로 승화시켰다. 또한 오성식 회장은 "장학금을 받았던 어린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후배들을 이끌어 주는 선순환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 회장은 과거 축구 동호회 회장 시절부터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어린 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활동 무대를 넓혀 영등포구체육회장으로서 그 나눔의 범위를 전 종목으로 확대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지원이 필



요한 초·중·고 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체육계의 미래를 육성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구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맞춤형 지원

영등포구체육회는 나이와 성별을 아우르는 폭넓은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구민들의 다채로운 삶을 채우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로 확보하며 농구와 게이트볼 리그에 투자를 더했다. 농구는 많은 어린이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효자 종목 리그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올해는 여성 축구 리그 네 팀을 신설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리그에 참여해 운동장을 누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안양천 등 풍부한 야외 자원을 활용한 기획도 돋보인다. 안양천에는 육상트랙과 롤러스케이팅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안양천 건강체조교실'과 '해달맞이 체육 교실'은 영등포구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늘어나는 반려 가구를 위해 반려견과 함께 뛰는 '애견 대회'를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영등포구체육회만의 세심한 운영 시스템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영등포구체육회 직원들은 복지관과 유치원 등 다양한 시설에 직접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성식 회장은 "체육회는 오직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봉사 단체"임을 강조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가 기술적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긍정 에너지로 뚝뚝 뭉친 직원들과 오성식 회장의 리더십이 만들어내는 활기찬 에너지는 오늘도 영등포구를 건강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mini interview

생활체육으로 하나되는 영등포

오성식 회장



오랜 시간 생활 체육 현장을 누벼온 진심을 담아 영등포구체육회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체육회는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구민의 건강이 곧 영등포의 힘이라는 믿음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민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을 가르는

화려한 발차기

세팍타크로는 '공중 예술'이라 불릴 만큼 역동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스포츠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 뒤에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이 자리한다. 서울특별시세팍타크로협회 장효정 회장은 취임 2년 만에 서울시체육회팀 남자 일반부 창단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일궈냈고, 올해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을 정조준하고 있다. 선수들에게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고 싶다는 그의 진심 어린 행보를 따라가 보았다.

글 심정윤 사진 박성수



서울특별시
세팍타크로협회
장효정 회장

Q1 서울특별시세팍타크로협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서울특별시세팍타크로협회는 서울시 내 세팍타크로 종목의 저변 확대와 엘리트 선수 육성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2018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준회원 가입을 통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보급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통합 기여를 목표로 하며, 선수 지원 및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2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 2년 차를 맞이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유년 시절 핸드볼 선수로 활동하면서 비인기 종목 선수가 겪는 스포츠 환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팍타크로협회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도 여건이 따르지 않아 고민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과거 제 모습이 생각나기도 했어요. 운동을 계속하고 싶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포기하는 서러움을 몰려주고 싶지 않았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마음가짐이 협회 일을 추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Q3 세팍타크로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세팍타크로는 '차다'는 뜻의 세팍(Sepak)과 '공'을 의미하는 타크로(Takraw)의 합성어로, 손을 쓰지 않고 발과 머리로만 공을 다루는 역동적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플라잉 킥, 롤링 스파이크 등 퍼포먼스 기술은 핸드볼보다 더 화려하죠. 게다가 네트 경기 특유의 박진감까지 더해져 관중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Q4 서울특별시체육회 남자 일반부팀 창단을 앞두고 계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동안 서울은 여고부(창문여고), 남고부(송곡고), 여자대학부(한국체대)는 있었으나 남자 일반부가 공석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서울특별시체육회 팀으로 남자 일반부를 창단하게 되면서 비로소 전국체육대회에 전 종별 출전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 등 총 5명의 새로운 일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죠. 전 종별 출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전국체전에서 서울시 목표 점수인 6만 점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서울특별시세팍타크로협회만의 강점과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협회장 취임 2년 만에 실업팀(남자 일반부)을 창단한 것이 이례적인 성과이긴 합니다. 서울은 학교, 체육시설,

인재풀이 집중되어 있어 시스템만 갖춰지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으로서 현장 지도자와 행정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강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서울시청과 서울시체육회 담당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Q6 업무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수상할 때 보람을 느끼지만, 무엇보다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었다고 느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팀이 없어 은퇴를 고민하거나 생업으로 떠나야 했던 선수들을 다시 영입해 직업 선수로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Q7 올해 협회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선수 육성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에 남자 일반부 팀이 창단 후 첫 경기를 치를 텐데요. 남자 일반부팀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팀 운영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안정적인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올해의 핵심 목표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 확보나 격려 차원에서 시장배 대회를 유치해 개최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업 중 하나입니다.



Q8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지금 출전하는 선수나 창단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잘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 임기 안에 현재 대학부(한국체대)로 운영되는 여자 일반부를 넘어 여자 실업팀(직장 운동 경기부)까지 창단하여 선수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계속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이 운동을 계속해도 괜찮겠다'라고 확신하며 꿈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바다를 거꾸로 보자

해양 오염의 원인에서 해양생태계의 파수꾼으로

매년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막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동안 해양레저스포츠인은 해양 폐기물을 양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 바다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남긴 흔적들이 해양 생태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워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와 해양 쓰레기 발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글. 조남용 해양문화 활동가

바다에 남겨진 레저의 흔적들

최근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한 해 동안 약 13만 2천 톤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일 25m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하나씩 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이다. 육지에서 생산, 소비된 다양한 제품은 제 기능을 다하거나 파손, 교체, 유기, 배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바다로 유입된다. 문제는 바다로부터의 제거량이 바다로의 유입량과 격차가 커질수록 해양생태계가 위협받는다라는 점이다. 이는 연쇄적으로 육지를 포함한 지구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 생산, 소비된 물품은 생활, 산업, 유통의 과정에서 제품과 그 포장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고 판매를 통해 얻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저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잘 파손되지 않으면서도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바다를 찾는 레저 인구도 빠르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낚시,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중촬영, 카약, 보트, 요트 등이 있다. 한편 바다는 어업, 관광, 문화, 물류, 스포츠 등 생활, 산업, 유통 등이 활발한 현장이고, 우리는 육지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 현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쌓여가는 해양 폐기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해양쓰레기와의 관계는 대략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막대한 낚시인구가 남기는 흔적이다. 낚시줄, 낚시 봉돌, 미끼 포장재, 낚시바늘은 수거되지 않은 채 바닷속에 남아 생태계를 위협한다. 특히 낚은 해양 생물이 섭취했을 때 중금속 오염으로 이어지고, 폐낚시줄은 바닷새와 돌고래의 목을 감아 죽이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된다. 그런데 수중 바위 틈에 걸려 끊어진 낚시줄이나 봉돌, 바늘을 무슨 수로 다시 건져 올릴 수 있겠는가. 미끼 포장재와 상자를 나름대로 가방에 챙겨두어도, 갑작스러운 강풍에 날아가 버리면 손쓸 도리가 없다. 곁에 놓아둔 커피 캔이나 음료병 역시 파도와 바람에 휩쓸려 순식간에 바다에 빠져버리곤 한다. 심지어 몸을 숙이다 떨어뜨린 자동차 열쇠나 휴대전화, 모자와 선글라스조차 분실시 수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다에 남겨지는 레저의 흔적들은 늘어만 간다.

둘째, 수상 및 수중 스포츠 과정에서의 훼손이다. 경솔한 핀 킥(Fin Kick) 하나나 해저 착지가 수십 년간 자란 산호를 부러뜨린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옥시벤존 성분은 산호의 백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해양 생태계를 교란한다. 탄력있고 백옥같은 피부를 원하는 만큼 물놀이도 하고 싶다. 때로는 구릿빛의 피부를 위해 태닝도 한다. 자외

선 차단제와 태닝 오일을 고를 때 가격과 유통기한, 기능도 꼼꼼히 확인한다. 그러나 제조 성분은 비교적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가격과 기능이 만족스러우면, 성분은 큰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것이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제품의 성분이 중국에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악영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셋째, 레저와 관광을 위한 선박 운항 문제다. 보트, 제트스키, 요트 등은 기름 유출과 소음 공해를 유발하며 민감한 연안 서식지를 무분별하게 가로 지른다. 즐기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바다에 가해지는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제 해양생태계의 파수꾼으로

이제 시선을 한 번 뒤집어 보자. 바다를 잘 알고 좋아하며 즐기는 사람을 누구인가? 바로 해양레저스포츠인들이다. 1968년, 미국의 육상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베리가 포스베리 플롭(배면뛰기)에 성공한 것은 기존의 방식(앞드려뛰기, 가위뛰기)으로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없었기에, 자신의 신장과 무게 중심의 위치를 고려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 결과였다.

과거에는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을 해양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간주한 경향이 컸다면, 여기에 덧붙여 앞으로는 해양폐기물 감소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거꾸로 된 관점'이 필요하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쓰담낚시'는 낚시를 하면서 주변 해안의 쓰레기를 함께 줍는 활동으로, 국내에서도 자발적 동호회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이버들은 그물에 걸린 폐어구와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에코(그린)다이빙'에 나서고 있으며, 카약커들은 연안을 누비며 수면 위 부유쓰레기를 직접 건져 올린다.

수중촬영가들은 해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목격하는 사람들이다. 한 장의 사진, 한 편의 영상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정책을 움직이는 촉매가 된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생태계를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커뮤니티는 이제 취미를 넘어서, 조직력과 현장 접근성을 갖춘, 가장 효과적인 해양 환경 파수꾼이 될 수 있다. 딕 포스베리처럼 발상을 뒤집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는 방향과 지치지 않는 시도다. 바다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 바다를 살릴 수 있다. 그 실천은 지금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된다.

글을 쓴 조남용 해양문화 활동가는 다양한 생명이 어울려 사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는 파라스쿠바(장애인스쿠바), 오션비질(해양폐기물수거및모니터링), 코랄세이프가딩(해양보호생물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공익법인 (사)제주해녀문화연구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메뚜기자세 챌린지로 3초 만에 확인하는 ‘후면 근육’ 등급 테스트!



seoul_sports_council

○○○

♡ 21K 💬 780 ↗ 83 📌 348

seoul_sports_council 내 몸이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메뚜기자세챌린지에 도전!

3일 전

뒷모습 좀 자신 있다고 자부하던 분들, 여기 모여보세요. 엎드린 자세에서 두 다리를 우아하게 들어 올리기, 과연 가능할까요?

반동을 주는 순간 탈락, 무릎이 굽혀지는 순간 패배입니다. 내 몸이 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메뚜기자세챌린지에 도전하고 당신의 후면 근육 성적표를 확인해 보세요!

글 편집실 사진. 『바른자세 향유가 127』 (사토리 산카라, 구보 레이크, 삼호미디어, 2019)

메뚜기 자세 (살라바아사나) 하는 방법

1

엎드려서 턱을 바닥에 댑니다. 두 손을 몸 측면으로 내려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팔을 엉덩뼈 아래로 넣습니다.

손목은 가지런히

두 다리 모으기



2

엉덩이와 허벅지 뒷면 근육을 강하게 조이면서 두 다리를 바닥에서 띄웁니다.

발끝은 뒤로

허벅지 조이기



3

팔과 가슴으로 바닥을 누르면서 다리를 45도 정도 까지 더 높이 들어 올립니다.

시선은 정면

반동 없이 유지



#메뚜기자세챌린지 인증샷 올리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 그대로를 인증샷을 올리고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필수 해시태그 #서울스포츠 #메뚜기자세챌린지

이벤트 기간 5월 15일 ~ 5월 31일

이벤트 상품 배달의 민족 2만 원권(5명)

챌린지 결과로 보는 나의 등급



성공!

반동 없이 우아하게 다리를 들어 올렸나요?

상태 척추를 지탱하는 체간 근육과 엉덩이, 허벅지 뒤쪽의 '후면 근육'이 매우 탄탄합니다. 몸의 중심을 잡는 협응력이 최상위권입니다.



실패!

다리가 아예 뜨지 않거나, 허리만 꺾이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상태 외형적인 근육은 있을지 몰라도, 몸 뒷면의 안정화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공 단계별 추천 동작

성공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흔들리는 몸을 기본 좋게 마주했나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한계에 한 뼘 더 다가섰다면, 오늘의 시도만으로도 당신의 자세는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실패했다면? 한쪽 다리 들기

포인트 양다리가 어렵다면 한쪽 다리씩 번갈아 들어 올리며 기초 체간 힘을 기릅니다.



성공했다면! 피스톨 스쿼트 (Pistol Squat)

포인트 배를 바닥에서 띄워 등을 크게 젖히고, 두 다리를 수직에 가깝게 위로 드는 '메뚜기자세 끝판왕' 동작에 도전해 보세요. 영화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했던 동작으로 유명한 동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번동중학교 육상부가 올해는 서울시 4관왕 달성과 전국대회 우승을 꿈꾼다. 이들은 단순히 빠른 속도를 겨루는 것에 머물지 않고,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기록 갱신에 도전한다. 트랙 위에서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된 학생들은 오늘도 운동장 위에서 힘찬 보폭을 내딛는다.

글. 심정윤 사진. 황지현 영상. 김지혜



번동중학교 육상부의
활력 넘치는 훈련 장면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어제보다 넓어진 보폭으로

함께 더 멀리 달리는

번동중학교 육상부



“
선생님과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기록이 단축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육상의 진짜 매력.
”

탄탄한 기본기와 성실함의 증표

햇살이 내리쬐는 번동중학교 운동장, 공기를 가르며 가르는 거친 숨소리와 트랙을 박차는 발소리가 가득하다. 번동중학교(이하 번동중) 육상부는 서울시 학교 스포츠클럽대회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남중부와 여중부 동반 3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번동중의 가장 큰 경쟁력은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지도 철학에 있다.

학생들의 훈련을 지도하는 오경태 체육안전부장은 단순한 반복 달리기보다 ‘원리’를 강조한다. 특히 달리기 기록 단축의 핵심인 ‘점프 탄력’을 높이기 위해 상, 하복근을 중심으로 한 코어 운동에 집중한다. 이는 다리를 더 높이 끌어올려 보폭(다리의 넓이)을 넓히고 보수(발걸음 수)를 빠르게 하려는 과학적인 접근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넓은 보폭과 빠른 발걸음을 조합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인 셈이다.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체계적인 체력 훈련과 근력 강화, 기록 측정 루틴을 성실히 수행하며 기량을 닦아왔다.

훈련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경태 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체육관을 울린다. “대회 날이라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이 갖춰지는 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니 순위 자체에 매몰되지 말아야해.” 그의 조언에 코어 운동 중이던 아이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작을 이어간다. 학생들의 눈빛에는 기록 경신의 의지와 스스로의 성장을 꿈꾸는 순수한 열정이 서려 있다.





오늘도 운동장 트랙 위에서 방과 후 연습을 하는
번동중학교 육상부 학생들



“끝까지 달려!”

합성이 가득한 운동장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기록 측정은 단순히 타인과의 순위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내가 세운 기록’을 갱신하며 성취감을 맛보는 동기부여의 장으로 활용된다. 훈련이 한창인 운동장에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가득하다. “2번이 1번 잡아야지! 끝까지 달려!”라는 외침은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동시에 서로를 향한 강력한 응원이 된다.

실제로 이날 훈련에서 남자부 주장 이동건 학생은 200m 기록을 평소 31초에서 29.32초로 대폭 단축하며 부원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이동건 학생은 “선생님과 선배들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기록이 단축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이 너무 좋다”며 “주장으로서 팀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어 올해 전국대회 우승을 꼭 이뤄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자부 주장 우정연 학생 역시 육상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강조했다. “체육 시간 때 달리는 게 좋아 시작했는데, 훈련이 힘들어도 기록이 줄어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며 “힘들 때마다 ‘조금만 더 달려!’, ‘얼마 안 남았어!’라고 서로 북돋워 주는 응원 문화가 다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땀방울로 쓴 성장 일기

육상부 활동은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까지 바꿔놓았다. 노유채 학생은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시작한 육상이었는데, 이젠 400m에서 1등을 하고 싶다”며 목표를 보다 높게 잡았다. 윤준영 학생은 “예전에는 좀 게으른 편이었는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 생활 자체가 성실해졌다”며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끝까지 뛰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엄청나다”고 말했다. 이어달리기 바통 터치 훈련에 매진하던 안예진 학생은 “연습한 만큼 기록이 나오는 정직함이 육상의 매력”이라며 “어려운 루틴은 선생님께 질문하고 반복 훈련하며 극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를 향한 1학년들의 열기도 뜨겁다. 달리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김수민 학생은 “3학년이 될 때까지 친구들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며 야무진 각오를 다졌다.

오경태 체육안전부장은 “우리 육상부는 단순한 성적보다는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노력의 결실을 직접 체감하며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가 번동중에서의 마지막 해라는 그는 “아이들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다. 달리기를 했던 순간이 끝까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제자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번동중학교 육상부원들은 오늘도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더 높은 꿈을 향한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트랙 위에 새겨진 수많은 발자국은 우승컵의 영광보다 값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자, 멈추지 않는 성장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오늘도 운동장을 뜨겁게 달구는 이들의 질주는 승패의 경계선을 지나, 평생 잊지 못할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완성해 가고 있다.

mini interview

번동중학교 육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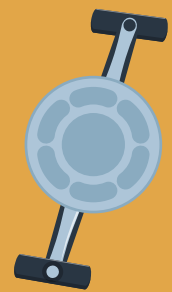


오경태 체육안전부장

번동중학교 육상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학교스포츠클럽대회 3연패를 달성하며 남중부와 여중부 모두 최강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팀이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코어 및 근력 강화 훈련을, 수요일에는 기록 측정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훈련 루틴을 소화하고 있다.

두 바퀴로 누비는
자유로운 해방감

서울시 라이딩 명소 4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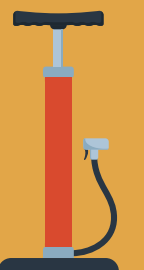


따스한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5월, 라이딩의 계절이 돌아왔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선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KORTIS)의 '조이라이드(Joyride)' 뮤직비디오는 자유를 갈망하는 청춘들의 라이딩 장면을 보여주며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상 속 멤버들은 도로 위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며 자유로운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번 코너에서는 코르티스가 전한 '조이라이드'의 생동감을 서울의 길 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라이딩 명소 4곳을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사진, 서울관광재단 제공



@사진출처: 서울관광재단





1. 뚝섬한강공원 ~ 광나루한강공원 코스

서울 동부권 한강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코스로, 탁 트인 강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가 강점이다. 성수대교부터 잠실대교를 거쳐 광나루에 이르는 길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위주라 초보자도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다. 코스 종착지인 광나루에는 '자전거 공원' 및 '이색 자전거 체험장'이 있어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추억을 쌓기에 제격이다. 암사생태공원의 풍부한 녹음이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숨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다.

📍뚝섬한강공원 → 성수대교 하단 → 영동대교 → 잠실대교 → 광나루한강공원 (암사생태공원)

2. 안양천 라이딩 코스

한강 합수부부터 경기도 의왕까지 이어지는 안양천은 계절마다 바뀌는 꽃과 나무를 감상하며 달리는 '힐링 코스'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주행 안전성이 매우 높으며, 시야가 탁 트여 시원한 개방감을 선사한다. 물길을 따라 조성된 평탄한 길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억새가 장관을 이루어 출사 라이딩으로도 유명하다.

📍안양천 합수부(성산대교 인근) → 도림천 합수부 → 광명 → 안양 → 의왕 백운호수



3. 반포한강공원 ~ 남산 업힐 코스

한강의 평지와 도심의 가파른 고갯길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실력을 가늠하는 훈련 코스로 통한다. 잠수교를 지나 한남동과 소월로를 거쳐 남산타워까지 오르는 여정은 서울의 역동적인 도심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남산 팔각정'까지 이어지는 업힐 구간은 라이더들의 성지로 불린다.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밤에 달리는 '남산 야간 라이딩'의 묘미가 크다.

📍반포한강공원 → 잠수교 복단 → 한남동 → 소월로 → 남산공원 입구(국립극장) → 남산타워(N서울타워) 팬더 앞



4. 북한산 산악자전거 코스

북한산국립공원의 수려한 바위 능선을 배경으로 자연 속에서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한 산악 코스다. 험로 주행에 최적화된 MTB를 추천하며, 우이령길과 같은 비포장 흙길에서는 노면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친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사전에 예약해야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이 필수적이며, 인근 임도를 연결해 달리면 일반 도로와는 차별화된 몰입감을 경험하게 된다.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와 새소리는 도심 라이딩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휴식을 선사한다.

📍북한산성 입구 → 진관사 입구 → 송추/일영 방향 외곽 도로 → 우이령길(사전 예약 필수) 또는 인근 산악 지대 임도(林道)

서울특별시체육회 NEWS



Seoul Sports Council News

서울시 선수단,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황리에 마무리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경상남도 김해시 일원에서 열린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종합 4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와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이번 대축전에 검도, 패러글라이딩 등 총 39개 종목에 선수 1,350명과 본부 임원 50명을 포함한 총 1,400여 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여 종목별 경기 운영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서울시 선수단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한 결과, 경기도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에 이어 경기력상 종합 4위에 오르는 값진 결실을 보았습니다. 종목별로는 수영과 철인 3종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하며 종목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어 요트와 테니스가 2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농구, 당구, 배구, 빙상, 씨름, 택견 등 6개 종목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 생활체육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으로 대회를 빛내준 서울시 선수단 모두가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서울시선수단 포상금 전달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지난 4월 1일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서울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 전달식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을 비롯해 포상금 수상자인 쇼트트랙의 심석희 선수와 손하경 코치, 스노보드의 최가온 선수 등 체육회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심석희 선수는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최가온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손하경 코치는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이끌어 금메달 획득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포상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불굴의 의지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서울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선수단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은 서울시 체육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김성범 신임 사무처장 임명...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조직의 실무를 책임질 새로운 사령탑으로 김성범 전 부회장을 사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지난 4월 6일자로 임명된 김성범 사무처장은 오랜 기간 체육계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울시 체육 행정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김성범 사무처장은 용인대학교 격기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체육인 출신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체육회 부회장 ▲강남구생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은 “현장 사정에 밝고 행정 능력을 겸비한 김 사무처장의 임명으로 서울시체육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중심의 체육 서비스 제공과 전문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성범 사무처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장님을 보필해 서울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함께 달리는 서울의 밤, ‘2026 7979 서울 러닝크루’ 운영 시작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서울의 주요 야간 명소를 함께 달리는 ‘2026 7979 서울 러닝크루’의 본격적인 운영에 나섭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7979 서울 러닝크루’는 퇴근길 시민들이 도심의 야경을 즐기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기획된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즌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광화문광장(도심권) ▲반포한강공원(강남권) ▲망원한강공원(강서권)을 거점으로 하며, 각 거점별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난이도의 코스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세션에는 전문 코치진이 동행하여 올바른 러닝 자세와 부상 방지를 위한 스트레칭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페이스(Pacer) 인력을 배치하고, 야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용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러닝에 관심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동마클럽’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운영 장소에서 현장 접수를 통해 합류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영락의료과학교, 스포츠 인재 양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가 미래 스포츠 산업을 이끌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교육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 4월 20일 영락의료과학교등학교(교장 김희영)와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체육회 김성범 사무처장과 영락의료과학교 김희영 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포츠 현장 실무 경험을 위한 행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자원 공유 및 지원 ▲지역사회 체육 프로그램 연계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락의료과학교 학생들은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행정 시스템과 현장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체육회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범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이 학생들이 스포츠 산업의 실제 기획과 운영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안전한 활동을 위해 체계적인 지도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서울하프마라톤 성료 ... 2만여 건각들 서울 도심 달궜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체육회,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6 서울하프마라톤’이 지난 4월 26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광화문광장을 출발해 상암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되었으며, 약 2만 명의 참가자가 서울의 봄 정취를 만끽하며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체 신청자 21,545명 중 19,909명이 실제로 참가하여 92.4%라는 높은 참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하프(HALF) 코스에 9,237명, 10km 코스에 10,672명의 시민이 참여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각 부문 우승자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하프 남자부의 박경민 선수가 1시간 11분 40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서는 김예다은 선수가 1시간 20분 46초의 기록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한 10km 코스에서는 백지훈 선수가 33분 54초, 노유연 선수가 36분 31초의 기록으로 각각 남녀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교통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즐거움은 더하는 안전한 대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스포츠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 어린이날 맞아 목동빙상장, 서울산악문화체험센터 무료 개방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강태선)는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지난 5월 5일, 수탁 운영 중인 목동실내빙상장과 서울산악문화체험센터를 시민들에게 특별 무료 개방하고 다채로운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빙상 및 산악 스포츠 체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목동실내빙상장에서는 ‘봄날의 스케이팅 축제, 스프링 온 아이스’를 통해 입장료와 스케이트 및 헬멧 대여료를 전액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행사는 총 3부제로 나누어 각 타임별 선착순 300명씩 참여했으며, 당일 오전 11시부터 현장에서 입장 따지를 선착순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초보자를 위한 무료 일일 강습과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서울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도 사전 접수자 40명을 대상으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무료 체험 행사가 이어지며,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실내 볼더링과 어드벤처 활동을 안전하게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회원단체 뉴스

2026 서울특별시컬링연맹 회장배 대회, 태릉서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컬링연맹(회장 박강규)이 주최·주관한 ‘2026 서울특별
시컬링연맹 회장배 컬링대회’가 지난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 태릉 컬링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유소년과 일반 동호인, 엘리트 선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대회로 운영되어 서울 컬링의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대회 1주차인 18일과 19일에는 학생부 경기가 치러
졌습니다. 초등부에서는 한양초(女)가 우승, 한양초(男)가 준우승
을 차지했으며, 중등부는 수명중 A팀이 우승, B팀이 준우승을 기
록했습니다. 고등부 엘리트 부문은 서울컬링클럽이 우승을, 세현
고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등부 생활체육 부문에는 세인트폴
을 비롯한 여러 국제학교 클럽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어지는 2주차 25일과 26일에는 일반 동호인부와 엘리트 믹스더
블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일반부에서는 지역 동호인들의 팀워크가
돋보였으며, 믹스더블 종목에서는 엘리트 선수들의 전략적인 경기
운영이 전개되었습니다.

박강규 서울특별시컬링연맹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유소년 유
망주의 가능성과 생활체육 컬링의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서울 컬링의 경쟁력을 높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축구협회, ‘제4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우승·준우승 쾌거

강서구체육회(회장 이명재)는 산하 회원단체인 강서구축구협회(회
장 최홍근)가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45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
회’에 60명의 정예 선수단을 파견하여, 노년부(50대) 부문 전국 우
승과 장년부(40대) 부문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거두며 강서
구 생활체육의 저력과 위상을 전국 무대에 가감 없이 드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및 양산시 축구협
회가 공동 주관하여 전국 각지의 강호들이 대거 집결한 권위 있는
대회였으나, 강서구 선수단은 끈끈한 조직력과 투혼을 발휘한 끝
에 노년부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장년부 또한 결승까지 진출
하는 쾌거를 이루어내며 지역 체육계에 기분 좋은 승전보를 전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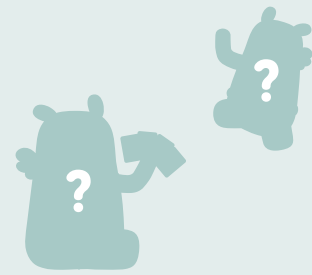


회원단체 행사

구 분	행사명	일 시	장 소	주최/주관	참가인원
서울시 소프트 테니스협회	2026 서울시민 유소년 및 신인부 생활체육 소프트테니스대회	6.6.(토)	수락산스포츠타운 소프트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	90명
	제44회 서울특별시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6.13.(토)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서울특별시 소프트테니스협회	230명
성북구체육회	2026 서울시민 한마음 스크린 파크골프대회	4.30.(목)	W파크골프 마실수유점	성북구파크골프협회	200명
	제3회 성북구연맹회장배 유소년 풋살대회	5.10.(일)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성북구풋살협회	500명
	제35회 성북구협회장배 테니스대회	5.10.(일)	월곡 테니스장	성북구테니스협회	650명
	제23회 성북구협회장기 볼링대회	5.31.(일)	JJ 볼링장	성북구볼링협회	300명
서대문구체육회	제31회 서대문구협회장배 테니스대회	5.10.(일)	가좌테니스장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테니스협회	
	제4회 서대문구회장배 파크골프대회	5.15.(금)	월드컵파크골프장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파크골프협회	
	제12회 서대문구협회장배야구대회	5.23.(토)~24.(일)	장충어린이야구장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야구 소프트볼협회	
	제17회 서대문구협회장배 게이트볼대회	5.29.(금)	홍제게이트볼장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게이트볼협회	
	제13회 서대문구연맹회장배 댄스스포츠대회	5.30.(토)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댄스스포츠연맹	
	제2회 서대문구협회장배 바둑대회	5.31.(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바둑협회	
	제4회 서대문구협회장배 배구대회	6월 예정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배구협회	
	제17회 서대문구협회장기 태권도대회	6.14.(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태권도협회	
	제19회 서대문구협회장배 민물장어낚시대회	6.20.(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낚시협회	
	제15회 서대문구협회장배 체조대회	6.20.(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본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체조협회	
	제2회 서대문구협회장배 국학기공대회	6.27.(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신관 대체육관	주최 : 서대문구체육회 주관 : 서대문구 국학기공협회	
	제10회 중랑구청장기 및 제9회 협회장기 댄스스포츠대회	5.3.(일)	중랑문화체육관	중랑구댄스스포츠연맹	
중랑구체육회	제6회 중랑구 장미축제 전국 배드민턴 대회	5.9.(토)~10.(일)	목동다목적체육관, 신내다목적체육관	중랑구배드민턴협회	1,500여명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 걷기대회	5.15.(금)	중화체육공원	중랑구체육회	1,000명

숨은 해치를 찾아라!

사진 속에 숨은 해치를 찾고 커피 기프티콘을 받아보세요!



참여 기간

2026년 5월 18일 ~ 2026년 5월 30일

참여 방법

- ① 숨어 있는 해치의 수를 셉니다.
- ② QR코드를 스캔해 구글폼에 접속합니다.
- ③ 해치의 수를 적어 제출합니다.

당첨자 안내

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당첨 선물

스타벅스 커피 쿠폰 (20명)



응모하기



2026년 9월(개관 예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로 하나되는 공간이 찾아옵니다!

서울어울림체육센터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지역주민 누구라도! 시민 모두가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상생 체육시설
장벽 없이 함께 어울리며 스포츠로 하나되는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개관을 축하해주세요!



지하
수영장, 볼링장, 주차장



지상 1층
다목적체육관



지상 2층
재활치료실, 스포츠용품점



지상 3층
다목적 공간 및 옥상 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268



서울특별시 산악문화체험센터

도심 속에서 즐기는 산악문화

- ☑ 도전 정신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복합체험공간
- ☑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클라이밍 실내외 인공암벽장
- ☑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암벽체험



예약하기